

OK저축은행 '인재양성' 사회공헌 활발

OK저축은행이 출연해 2002년에 설립된 OK배정장학재단이 올해 출범 18주년을 맞았다. 재단은 설립 이후 꾸준히 국내 중·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. 2009년부터는 재일동포 등 13개국 해외동포에게 약 23억원을 후원하는 등,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총 140억원에 달한다.

OK배정장학재단의 이름은 “배움을 게을리하지 말고, 성공한다면 사람과 배움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힘써라”라는 최윤 OK배정장학재단 이사장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어가자는 뜻에서, 두 분의 성함을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.

재단은 'OK희망장학금'과 'OK생활장학금'에 주력하고 있다. 중고생, 대학(원)생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매월 20만~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다.

이중 OK생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했지만,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쪼개 쓰는 대학(원)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제도다. 이 장학금에 선발된 장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기준 성적만 유지하면 졸업

시까지 지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.

재단은 OK글로벌장학생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해외동포 학생도 후원해오고 있다. 2010년에는 재일동포 학생을 위한 단기 멘토링 프로그램을, 2014년에는 '한국인'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강학교, 동경한국학교, 건국학교, 교토국제학교 등 일본 내 6개 한국민족학교에 지원을 시작했다.

OK배정장학재단 최윤 이사장은 “OK배정장학재단을 국내외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민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장학재단으로 키우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 ▼

